

어촌어항발전 워크숍 개최

어촌어항어장 발전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에서 “어촌어항어장 발전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배평암 회장 이하 협회 본부 및 선박 직원 54명 전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혁신정책에 부응하고 임직원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조직 내 혁신문화 내재화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수원에 도착하여 입소식과 숙소배정을 거친 협회 임직원



들은 최익영 전무이사의 진행으로 “협회 현황설명 및 혁신성과 창출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혁신 이해하기, 점화하기, 설계하기, 내재화하기, 저항관리하기의 순서로 진행된 혁신창출 교육이 있던 후에는 현안 과제를 놓고 협회가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혁신구호도 제창하였다.

이튿날에는 아침산행 및 조식을 마치고 나서 월드인재교육원 김동한 대표의 혁신 특강시간을 가졌고, 협회 혁신 영상물을 관람하였다.

“혁신역량강화 및 혁신성과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은 변화·혁신의 필요성과 혁신

역량 강화방안, 성과의 창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혁신 영상물은 협회 업무 소개와 혁신 요소 발굴 등의 내용으로 상영되었다.

이후에는 본부별 혁신아이디어 제안 토론회 시간을 가졌고, 퇴소식 후 전체 일정을 마무리 했다.

영덕군 창포리어촌계와 자매결연 맺어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1월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창포리어촌계와 어촌사랑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자매결연식은 김병목 영덕군수, 윤중목 강구수협조합장, 권오석 영덕군의회의장 등 내외 귀빈과 김태주 창포리어촌계장, 유노종 이장 등 마을주민 100여명, 협회측에서는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12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뤄졌다.

배평암 회장과 김태주 어촌계장은 자매결연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창포리어촌계가 경로회 및 애향단체지원, 지역수산물 직거래,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어촌과 고향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축사를 통해 우리

나라 어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수산계 대표 단체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풍부한 수산물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창포리어촌계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아주 뜻 깊은 일이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자매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쌓아 오래도록 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일 해양환경당국, 인천환경사업 현장시찰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1월 23일 “인천앞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한국과 일본의 해양환경당국자들에게 설명 및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신홍보관 및 인천항 일원에서 열린 이 설명회에서 양국 해양환경당국자들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현재 진행 중인 “인천앞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현황을 브리핑 받고,

이어 인천항으로 이동 어업인수매사업 현장과 연안 해역 침적쓰레기 및 해안가 부유쓰레기 수거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에 개최된 한·일 해양환경 실무부처(해양수산부-국토교통청) 정례협의회는 한·일 양국의 해양환경실무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양국 수역의 보존과 현안 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이다.